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방향

채정현* · 이수희** · 유태명***

한국교원대학교* · 이화여자대학교** · 경상대학교***

Social Contribution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ae, Jung-Hyun* · Lee, Soo-Hee** · Yoo, Taemyu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ut forth of a future vision from examining of social contribution, future direction, and theoretical framework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its cases of practice in educational setting. This study was carried with literature review, and results of study were as follows:

First,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contribute to society through ① educating individuals suffering from family tiredness to maintain autonomous lives free from distorted family ideology by being critically conscious of them in individual dimension, ② educating individuals to develop a competence as a citizen to be critical of family ego-centric ideas and to participate and support communal life in family-social dimension, and ③ educating female and male students gender sensitivity and management of family life to be critical of gender discrimination ideology in gender dimension. Second, future home economics education should reinforce all round character education which let students develop their creativity and problem solving ability and foster students' wisdom of life with honesty and morality rather than merely acquiring knowledge in individual dimension. Third, this study employed Brown and Paolucci's conceptual scheme as a theoretical framework which focuses on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leading individuals and families as a changing agent. This framework let individuals and families to critically examine the social character and ideas provided by existing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ystems, and to transform social character and ideas to build an ideal societal condition when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m. Fourth, this study examined sample classroom instruction of Japan and FCCLA of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ee how they educate students to become a changing

1) 이 원고는 2010년 7월 27일 한국가정교육학회 제 22차 하계학술대회(가정교과의 사회적 기여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방안)에서 기조강연으로 발표되었음.

2) 교신저자: Yoo, Taemyung, 900 Gazwadong, Jinju,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82-55-751-5638, Fax: +82-55-756-5637, E-mail: franco@gnu.ac.kr

agent. In conclusion, future vi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is to accomplish family revolution to sustain happy family relation and their family lives in which they feel pampered from achievement and free from distorted family ideology. For home economics to accomplish family revolution, it should strengthen education for empowerment, enlightenment, and autonomy. This study calls for immediate paradigm shift not as an occupational but as a practical-critical praxis subject matter for family revolution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Key words: 가정교육학(Home Economics Education),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 미래 방향(Future direction), 미래 비전(Future vision)

I. 서론

최근 가정 교과가 당면하는 도전은 가정교육학이 태동한 이래 겪은 그 어떤 위기보다 심각하게 우리의 근간을 송두리째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 출범된 대통령 직속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는 그 해 5월 미래형 교육과정 초안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23일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렇게 고시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2011년부터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적용되어 2013년에는 모든 학년에 시행될 것이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학년군과 교과군의 도입(기술·가정은 중학교에서 과학 교과군에 고등학교에서는 생활교양 교과군에 속함), 교과목 수를 한 학기당 8개 이내 편성, 학교 재량으로 교과군내 시수를 20% 증감할 수 있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중학교 1학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올해 2010년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개발되었으며 2011년에는 각론이 개발될 예정이다. 중학교의 경우는 과학과 같은 교과군 속해 있기에 2008년도부터 시행된 일제고사 체제에서 학교의 재량에 의해서 기술·가정의 시수를 늘리고, 과학 시수를 줄이는 학교는 드물 것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생활·교양 교과군에서 기술·가정과목을 6단위로 권장하고 있고 가정과교사가 고등학교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선택되었으나 근무 연한을 마치고 그 학교를 떠나면 제2외국어 교과 등과 경쟁하여 선택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 예측된다.

우리 사회에서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학교에서 가정 교과의 입지는 왜 축소되고 소홀해지고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원인으로 박명희(2004)와 박미정(2006)은 가정 교과의 정체성 혼미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단편적인 지식과 기능 습득 위주의 백화점식 내용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연숙 외(2005)는 여기에 덧붙여서 가정생활의 개념을 가정 내에 국한시켜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실업교과로 분류되어 기능 습득에 치우친 데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실업교과로 분류되어 기능 습득에 치우치는 교과의 내용은 현대의 복잡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한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미국에서도 가정(교육)학의 정체성에 고민을 하였는데 급기야 미국가정학회에서는 1970년대 말에 이에 대한 해결을 Brown과 Paolucci(1979)에게 의뢰하여 ‘가정학의 정의’와 ‘가정교육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하게 하였다. 이 문서에서 이들은 가정(교육)학의 학문적 성격은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봉사하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이라고 명시하고 이 학문의 기초를 비판철학에 두어 민주사회에서 책임감이 강하고 자율적인 힘이 있는 성숙한 가족으로 교육하여 가정과교육을 통한 가족개혁과 사회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국가 수준 가정과 교육과정(NASAFACS: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 2008)에서는 1998년에 가정과교육의 비전을 개인과 가족이 생애 전 과정에서 다양하고 세계화된 사회에서 일상 생활과 일의 도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자율적·주도적인 힘(empowerment)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가정과교육의 독특한 관심은 가족, 일,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데 있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과교육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이전까지는 가정생활에 관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습득하는 데 목적을 두었고 가정교육학의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였다. 이에 가정과교육자들조차 가정 교과를 실업 교과, 생활 교과, 기능 교과, 노작 교과 등으로 여기며 우리 교과의 정체성 혼미에 빠져 있곤 하였다.

이 사회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교과는 교과의 내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교과가 사회에 기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가정 교과는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교과인가? 우리 사회는 가정 교과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우리는 어떠한 기여를 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눈을 감으면 생생이 떠올라 가슴 설레는 가정 교과의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가?

본고에서는 사회변화와 요구에 따른 사회적 기여와 가정교과의 미래 방향, 사회기여를 위한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실천 사례를 소개하여 가정 교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서 가정과교육자인 우리들은 교과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로부터 결정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느닷없는 고시로 인하여 스스로 좌절하거나 무력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가정과교육자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지 확인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II. 가정 교과의 사회적 기여와 미래 방향

1. 우리 사회 특성과 가정 교과의 사회적 기여¹⁾

20세기 후반부부터 우리 사회는 시간과 공간 차원에서 문명적 변화가 극히 단축적이고 응축적인 면들을 가지면서도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매우 복합적인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즉 ‘압축적 근대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장경섭, 2009). 이러한 특성을 지닌 사회에서는 변화의 시간이 급격히 가속화되어 이질적인 요소들이 혼재하여 경쟁하고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나라

사람의 가족 중심적 삶을 통해 개인들에게 재현된다. 결국 개인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우리 사회의 가족 이념(일명 유교적 가족이념, 도구주의적 가족이념, 서정주의적 가족이념, 개인주의적 가족이념) 속에서 이러한 이념들이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해야하는 ‘기능적 과부하’ 상태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가족 피로는 가족 내 긴장, 갈등, 가정폭력, 성폭력, 노인 학대, 가출, 이혼, 별거, 약물남용,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장경섭, 2009, 옥양련과 박금식, 2001; 박정호, 2004). 이러한 현상은 출산과 결혼 포기 등의 탈가족화 추세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국정과제의 수준으로 삼을 만큼 심각하고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로 노출된 청소년과 가족 문제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죽음 중 자살은 두 번째 사망 원인이다. 교육인적자원부(2010)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자살한 학생을 2008년과 비교했을 때 무려 47%나 급증하였고 2005년부터 2009년의 5년 동안 학생자살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불화로 전체 자살원인의 32%를 차지하였다. 10대 청소년 70% 이상이 최근 1년 동안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10명 중 1명 이상이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높은 수준의 음주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문정태, 2009).

흡연에 대해서 남학생의 경우 2008년 중학생의 흡연율은 5.7%,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18.1%였다. 이는 1988년에 비해 중학생은 3배 정도 증가한데 비해 고등학생은 오히려 감소하여 최근 중학생의 흡연율이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십대 청소년의 임신은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10대 청소년의 분만 건수는 2006년 1천 4백여 건에서 2008년에는 3천 3백건으로 급증하였다. 무허가 시술을 통한 분만과 낙태까지 합치면 10대 임신은 최소 배 이상이 될 것이다(최고은, 2010).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이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학기간 동안 초중등학교 학생의 22%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1) 본 내용은 채정현(2010). 미래 가정과교육의 방향, 지향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워크샵. 2010. 9. 27. 발표된 미발행 자료의 일부임.

이들 중 63%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2002년 우리나라의 이혼 건수는 14만 5300여 건으로 하루 평균 398쌍이 이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0년 전과 비교해 10만 건이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이혼율은 3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평균 이혼 연령이 남자 40.6세, 여자 37.1세로 나타나 10년 이상을 함께 한 부부의 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혼부부 10쌍 가운데 7쌍은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박정호, 2004). 게다가 가정폭력이 급증하고 있다. 여성부(2008)가 실시한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 우리나라 가정에서 발생한 가정폭력발생률이 50.4%로 두 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부부폭력은 40.3%로 부부 2.5쌍 중 1쌍이 1년간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폭력의 종류로는 정서적 폭력(33.1%), 신체적 폭력(11.6%), 그리고 성학대(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사회와 가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통계청(2009)에 따르면 2008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과 수명연장으로 노인인구는 증가하는데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2%에 이르러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고령화 역시 세계 최고속도를 기록하면서 2010년 75세 이상이 10.9%에 이르지만 2025년 20%, 앞으로 40년 후인 2050년에는 37.3%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속도로 나아가간다면 향후 2050년에는 전체 OECD 국가 중 고령화 수준이 최고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출산을 저하와 고령화는 청년층 실업률을 증가하게 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여성의 가사부담 과중, 결혼에 대한 소극적 인식, 자녀관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며 국가의 재정을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다문화 가족이 증가하였다. 우리 사회는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서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2009년 5월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외국인주민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외국인주민은 2009년에 주민등록 인구의 2.2%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2008년에 비해 24.2% 증가한 것이다(김은정, 2010). 가정과 교육은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하

지만 다문화 가족이 증가한 사회의 현상을 파악하여 가족과 가정생활에 관련하여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교육 역시 필요하다.

장경섭(2009)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미시적 기초로 사회개혁과 함께 ‘가족개혁’을 병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가족개혁은 한국인들이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일상적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그 성취감으로 위안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내용은 가족 개인의 의지, 의욕, 의식의 변화에만 호소되어 이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해법은 한국의 남녀학생 모두가 공식적인 교육 기관인 학교에서 가족과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가정과교육에서 가능하다고 본다. 가족개혁을 위한 가정과교육은 앞으로 다음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 교과에서 사회의 빠르고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가족피로와 한국의 특수 가족 이념(유교주의, 서정주의, 도구주의, 개인주의)을 비판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즉 가정 교과에서는 의·식·주·아동·가족·소비 등의 내용으로 또는 이 내용을 통합하여 가족들의 깨어남(enlightenment)과 자립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행동(empowerment)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가정 교과는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가정 교과는 가정 그 이상의 일터, 사회, 국가, 세계로 우리의 관심을 넓히고 가정교육을 통해서 가족의 의식을 성숙하게 하여 가정을 사회 변화의 주체집단이 되게 하여야 한다.

셋째, 남녀관계 면에서 남녀가 함께 일상적 가사 관리에서 출산, 자녀양육, 노인보호에 이르기까지 그 역할을 담당하여 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성 영역 분절 이데올로기를 조장하는 유교적 가족이념, 서정주의 및 도구주의 가족 이념이 타파되어야 한다. 가정 교과는 이러한 성차별 이념을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국가차원에서 가족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활에서 남녀모두가 성의 구별 없이 자주적으로 의·식·주·소비 등의 생활을 관리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가족개혁’은 가족의 일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과 가정생활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가정과교육에서 가능하다. 1990년대부터 유태명(1996)은 가정 교과에서 학습자의 자율적 힘, 의식의 깨어남, 그리고 자주성 교육이 내포된 실천비판과학 패러다임의 도입을 제기하였으며 그 후 여러 학자들(류상희, 1999; 이수희, 1999; 채정현, 1996)은 가정과 교육과정은 실천비판과학 철학이 내재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관점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 관점을 일부 도입하였고 내용도 현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였다. 하지만 사회요구를 반영한 교과의 내용만으로 가족을 개혁하는 것은 역부족이다. 가정과교육자들이 먼저 가정교과를 통해서 가족개혁을 하려는 의식과 신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가정과교육자가 한국사회에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는 가족개혁의 비전을 갖는다면 가정교과는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2. 미래사회의 요구와 가정교과의 방향

미래 사회의 특성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지식정보화, 세계화, 다원화이다(김영길, 2008; 문용린, 2008; 허경철, 2001). 김영길(2008)은 여기에 보태서 생명 과학 시대, 그리고 퓨전(fusion: 통합)의 특성을 지닌 사회라고 제시하고 이 시기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 창의성, 문제해결력, 도덕성 등 고등사고능력이 요구되기에 ‘과목지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정지식’으로, 지식 전수의 ‘인력교육’보다는 도덕성을 겸비한 ‘인간교육’으로, 학문의 고립화가 아니라 통합으로 그 방향을 설정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춘식, 최유현과 유태명(2001)도 미래 교육은 수많은 정보원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지식을 찾을 수 있고, 그렇게 찾은 지식과 정보를 삶에 적합한 자기 지식으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그 초점을 맞추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비추

어보면 가정 교과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습득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배운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여 그들만의 창의적인 가정생활을 형성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문용린(2008)은 세계화와 다원화의 특성을 지닌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새롭고 낮은 가치와 문화에 적응하고 지식과 기술과 문화의 수요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입교육’에서 ‘개발교육’으로 전환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은 삶의 능력보다는 삶의 능력, 지식과 기술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일과 삶의 균형, 행복 능력의 개발, 성격 강점과 미덕의 도덕성 개발, 몰입하는 기술과 습관을 교육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허경철(2001)도 미래교육은 삶보다는 삶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데 삶을 위한 교육은 실용중심, 생활중심, 활용중심, 과정중심, 문제해결 중심의 지식이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박미정(2006)은 미래 가정 교과는 4가지 학습, 즉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아가기 위한 학습 강화에 지향점을 두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가정교육학은 학생의 삶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할 뿐 아니라 그동안 가정 교과목적으로 제시되어 왔던 ‘삶의 질 향상’의 의미를 보다 확장하고 질적으로 성숙시켜, 실생활의 체험과 연결시키고, 사고하고 일하며 관계하고 느끼고, 성숙시켜, 실생활의 체험과 연결시키고, 사고하고 일하며 관계하고 느끼고 존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삶의 국면에 대한 실생활 맥락을 파악하고 기존의 단순 기능 위주가 아닌 총체적 체험을 실생활에서의 문제 해결과 연결시켜 제공하는 교육과정과 그 과정에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

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비판하여 참여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된 사회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가정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하고 세계에 알리는 교육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단순 암기식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지식을 정의하고 모으고 분류하고 비판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동기를 불러일으키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토론교육과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III. 가정교육의 이론적 틀과 실천 사례

지금까지 미래사회의 요구와 사회변화에 가정교육이 가족개혁을 통하여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에 기여하여야 할 당위성과 잠재력을 조망해 보았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적합하며 미래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정교육이 기초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가정교육 실천의 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의 비판적 사회활동을 위한 실천적문제 중심 수업, 일본의 홈프로젝트와 클럽활동, 미국의 동아리활동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이론적 틀: 역량 있는 변화의 실행자로서의 가족이 되는데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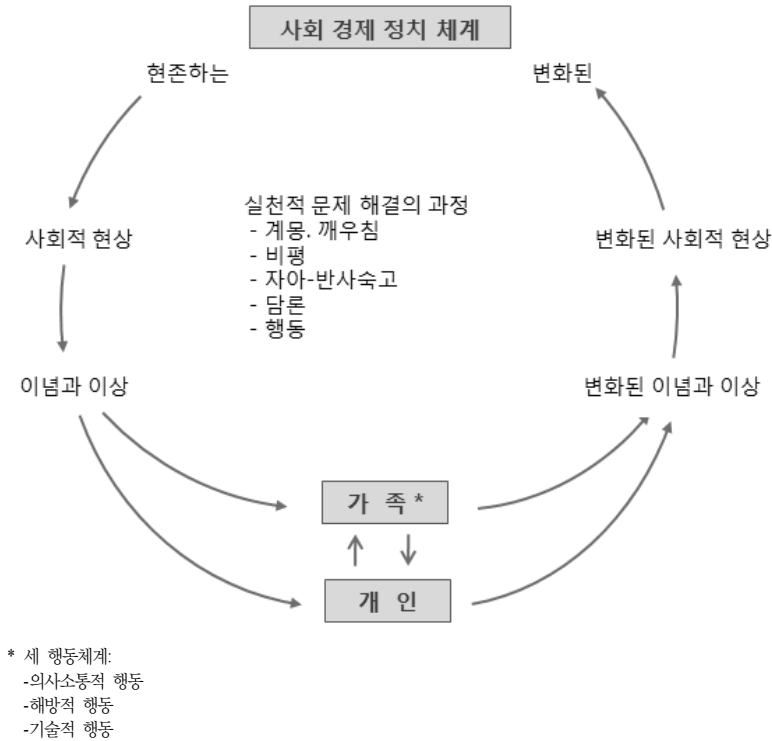
앞서 살펴본 가족개혁과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은 무엇이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기보다는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즉, 가족개혁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역량을 키울 수 있고, 개인과 가족의 역량이 가족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개혁은 개인과 가

족의 역량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경제·정치 등의 민주적 조건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또한 가족의 역량이 사회·경제·정치의 민주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가정 교과가 미래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가?의 실천적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찾는 것은 가정교육을 전공한 교사와 교사교육자의 전문 활동을 위해 공통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고 이를 위한 적합한 접근방법을 찾고자 함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의 전제(presupposition)는 제안된 이론적 틀은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개인, 가족과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며, 이로부터 미래 비전이 제시될 수 있는 이론적 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여기서는 미래 사회에 가정 교과는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가?를 위한 이론적 틀로 Brown과 Paolucci(1979)가 가정학을 전문분야로 또한 사명을 가지고 문제 지향적인 실천과학으로 학문의 특성을 개념화하고 허버마스의 인식론에 기초하여 가정학 지식의 조직을 위해 제시한 개념적 체계를 제안한다. 이 틀은 개인, 가족, 사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 방법으로 세 행동체계의 유지와 실천적 문제 해결을 제시하고 있다.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경제·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특정 사회가 내세우는 영웅과 같은 사회적 캐릭터)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경제·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그림 1]과 같이 제안하였다. 이 개념적 체계에서 개인과 가족은 가정생활의 세 행동체계(의사소통적, 해방적, 기술적 행동체계)를 잘 이루어 가는 것을 통하여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변화의 실행자로 보았다. 이개념적 체계는 사회적 형상은 이념과 이상을 만들고, 이념과 이상은 가족과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assumption)을 한다. 또한 가족과 개인은 세 행동체계를 유지하는 주체이며 계몽, 비평, 자아반사숙고, 담론, 행동을 통하여 실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가진 존재이다. 이러한 역량은 현존하는 이념과 이상, 사회적 형상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정치 체계를



[그림 1] A conceptual scheme of the family as an agent of transformation

(개념적 체계: 변화의 실행자로서의 가족)

출처: Brown & Paolucci(1979, 53)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임의적이어서는 안되므로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에 비추어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Sandel(2010)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정의를 고민하는 것은 곧 최선의 삶을 고민하는 것일지 모른다.”(p. 22)라며,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해야만 무엇이 정의로운 법인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기에,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p. 21)라며 고대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바람직하다’와 ‘좋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가치중립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치지향적

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선의 삶을 공통의 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찾고자 하는 가정 교과를 통하여 ‘미래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찾아보는 활동도 그 틀 안에서 가치지향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미래 사회의 특성과 요구에 비추어 이러한 기여를 하는 것이 저러한 기여를 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혹은 ‘현재와 미래 사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기여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 요구되는 문제이자 실천적 문제이다. [그림 1]의 중앙에 ‘실천적 문제 해결의 과정’이 위치하며, 그 과정으로 깨우침, 비평, 자아-반사숙고, 담론, 행동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 이론적 틀은 실천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사고와 가치판단,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가 미래를 조망하고 미래를

위해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인가를 제안하는 것은 과거를 반사 숙고적으로 검토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의 시점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시간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어야 한다. 유태명과 이수희(2010)는 가정과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의 선정에 대해, Brown과 Paolucci(1979)에 기초하여, 세대를 거듭하여 혹은 같은 세대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항구적 문제, 가족의 생애 발달을 고려한 문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이라는 세 시간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그림 1]을 살펴보면 ‘현존하는’은 과거와 현재를, ‘변화된’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의 세 행동체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개인과 가족은 과거와 현재의 이념과 이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주체이기에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셋째, 교육을 통하여 긍정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기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학습을 통하여 긍정적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의 측면은 학교교육의 장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개인과 가족은 학교교육의 장이 아니라도 학습이 가능하며 가정 내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를 통하여 많은 것을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기에 학교교육의 장에서 담당하는 것이 요청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찾아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최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은 더더욱 축소된 시수와 집중이수라는 새로운 교수학습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에 어떠한 최소 필수 내용요소를 선정하고 어떠한 내용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미국 오리건 주 가정과 교육과정(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 1996)은 [그림 1]의 실천적 문제 해결의 과정에 사용된 일련의 사고과정과 행동과 같은 지적 도덕적 활동은 학습되어야 하고, 학습될 수 있음을 교육과정 가정(assumptions)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등사고 능력은 쉽게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에 오리건 주 교육과정은 실천적 문제로 내용체계를 구성되었고, 그 방법으로 실천적 추론을 적용하여 매우 깊이 있는, 의미 있는, 그럼으로써 교과로서의 가치를 잘 드러내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의 원천인 교과, 학습자, 사회의 제 측

면이 고려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교과 요소의 경우 우리가 교과를 어떤 본질로 보느냐에 따라 이 이론적 틀을 판단 할 수 있다. 가령 가정 교과를 학문 중심 교과로 본다면 이 틀은 어떻게 교과가 미래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교과를 실천적 문제 중심으로 본다면 가정 교과가 실천적 문제 해결의 다양한 과정을 통하여 기여할 수 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학습자와 사회 요소의 경우, [그림 1]이 현존하는 사회·경제·정치 체계로 시작하여 가족과 개인의 역량에 의하여 사회·경제·정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마땅히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가 고려될 수 있음을 파악하는 것은 용이하다.

이상에서 Brown과 Paolucci(1979)의 개념적 체계가 가정 교과는 미래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해야 하는가?를 위한 이론적 틀로 제안해 보았고 그 타당성을 네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네 측면은 물론 완전하지 않고 다른 측면에서도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특히 이 시점에서 가정 교과가 미래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인가라는 비판적 성찰이 필요하며 교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도록 가정과교육이 무엇을 하는 지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전략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Brown(1980, 1993)은 인간의 자아형성 능력과 가족의 교육적 기능, 사회의 자유로운 조건이 모두 상호호혜적인 관계에서 작용할 때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로운 사회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개인, 가족, 사회는 물리적인 존재 이상으로 가치와 이념, 사람들 간의 관계와 행동, 역사와 문화, 제도와 사회·경제·정치 체계 등과 같은 맥락과 현상 안에 존재하는 본질을 갖고 있다. 가정과 교사는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요소인 교과, 학습자, 사회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함으로써 미래 사회에 기여하여야 할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가정과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스스로 변화의 주체로서 역량 있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가족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된다.

2. 실천 사례: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수업 및 동아리 활동

가정 교과가 민주 가정과 민주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표 1) 비판적 사회적 행동을 이끄는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 사례

학습단계		학습내용	교수 학습 활동	시간(분)	학습자료 및 유의점
도입	문제 인식	•식사와 건강과의 관계	•자신의 식품 구입 습관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 식생활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 인식 유도 •영상자료를 통해 자신의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편견, 생활 습관, 환경적 요소와 같은 다양한 요인, 식사와 건강관계 인식-> 식사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유도	20	
전개	실천적 문제 해결	•사례의 맥락 이해	•읽기자료를 통해 ‘건강한 식사’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적, 사회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맥락 이해	15	•교사: 비판적, 윤리적 질문하기
	비판적 반성	•다양한 대안을 비판적으로 판단 •사회적 지원체계 고려하기	•읽기자료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위해, 개인적인 노력 이외에 필요한 사회적 요소 고려하기(*) •교사 질문: ‘ <u>사회적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u> ’	10	
정리	비판적 사회 행동	•실천하기	•‘학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보기(**)	5	

주. 밑줄은 설명을 위해 연구자가 붙임.

다고 한다면 이는 가정교육을 받은 학습자가 그들의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전문분야의 교사들은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교육을 통해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수업의 통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다룬 사례와 동아리 활동과 수업을 연계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을 통한 비판적 사회 행동 실천 : 우리나라의 사례

본 수업은 실천적 문제 중심 수업에서 비판적 사회행동까지 실천을 유도한 수업의 사례¹⁾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학생들이 읽기자료 ‘학교매점, 아침밥 챙겨주는 “건강매점”으로(천지일보. 2009년 09월 25일자 기사)’를 읽기 전,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도록 교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질문들을 유도했다.

① 건강 매점이 모든 학교에서 운영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② 아침밥을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건강 매점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③ 학교에서 어떤 영양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개인적 요소 외에 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는 자신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 행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함께 생각하도록 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2) ‘홈프로젝트와 학교가정클럽활동’을 통한 실천: 일본의 사례

2009년 고시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기초한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해설-가정편(2010)을 중심으로 소개해 보면 다음

1) 본 수업은 육승희(2010)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이다.

(표 2) 사회적 활동의 필요성을 다룬 활동지 사례

● 읽기자료 ‘학교매점, 아침밥 챙겨주는 “건강매점”으로’를 참고하여 여러분이 건강한 식사를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작성해 보시오. [<표 1>의 (*)부분에 대한 활동]
 개인적인 측면에서:
 가족적인 측면에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 위에서 작성한 이유들 중 개인적, 사회적 도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떠한 도움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작성해 보시오. [<표 1>의 (***)부분에 대한 활동]

과 같다. ‘홈프로젝트와 학교가정클럽활동’ 영역은 일본의 고등학교 가정 교과 3과목-가정기초, 가정종합, 생활디자인- 모두 다루고 있는 영역이다.

이 영역은 자신의 가정생활이나 지역의 생활과 관련지어 생활상의 과제를 설정하고, 해결방법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을 통해 생활을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이나 문제해결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데 있다. 가정 교과 전 단원을 학습하는 중에, 홈프로젝트는 각자의 생활 속에서 과제를 발견하게 하고, 학교가정클럽활동은 학교나 지역의 생활 속에서 과제를 발견하게 해 문제해결을 하도록 하는데, 특히 학교가정클럽활동은 자원봉사 등의 사회참여 의식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이 두 활동 모두 반드시 ‘가정과 수업의 일환으로 계획, 입안, 참가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홈프로젝트(신상옥, 이수희, 2001)와 학교가정클럽활동(牧野カツコ外16, 2004)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천 사례 1 - 가족영역에서의 홈프로젝트

① 문제의 발견 : 의식주의 합리화, 우리 집의 에너지절약, 가족의 일과 그 협력

② 제목: 가족의 일과 그 협력

③ 제목설정의 이유 : 우리 집은 4식구나, 남동생, 아버지, 어머니로 어머니도 직업을 가지고 있다. 가정에서의 일은 어머니께서 중심이 되어 하시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우리들은 어머니를 도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클럽활동이나 공부 때문에 생각만큼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어머니의 일을 덜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안한 끝에 이 제목을 선택했다.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어머니께서도 즐

거우실 뿐 아니라 가족의 유대도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④ 실시계획:

- 가족의 일의 양을 조사하고, 그 문제점을 생각한다.
- 가사 분담을 정한다.
- 실시한다.

⑤ 실시

-사전 준비

첫째, 일의 양을 조사한 결과, 가정안과 밖에서의 어머니의 일의 양과 자신의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의 일이 얼마나 적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 어머니는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이 거의 없었다. 우리들이 도움으로써 어머니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자유시간도 가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정 내의 일의 내용을 뽑아내어, 일의 분담을 바꾸어 보고 그것에 따라 일의 양을 예상해 본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족 간의 일 분량의 차가 적어지고, 어머니의 일도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실시 : 실시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⑤ 평가 : 이렇게 확실하게 효과가 좋아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지금까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로한 탓인지 건강이 나빴는데, 요즘은 생글생글 웃을 때가 많아졌다. 또 돕는 동안에 대화를 함으로써, 지금까지보다 가족 상호간의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고, 가정의 분위기도 부드럽게 되었다. 꼭 오래 지속해서 보다 밝은 가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 실천 사례 2 - 학교가정클럽활동 사례

① 문제선택의 이유 : 우리 학교에서는 이전부터 자원봉사

활동에 관심이 높았고, 클럽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부상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또한 가정과 수업에서 배운 자원봉사활동을 계기로 자원봉사활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 이 과제 ‘모두 함께 자원봉사를-서로 돕는 지역을 목표로-’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② 실시계획 : 실태조사, 실천활동, 정리, 반성 및 앞으로의 과제

③ 실시상황

-실태조사: 자원봉사활동의 의식조사, 시청방문, 시청 사회복지협의회 방문

-실천활동: 복지열차의 자원봉사활동 참가, 장애우와의 교류캠프 참가, 수학 공부, 장애우 시설의 행사 참가, 클럽구성원들에게 알리기, 노인 시설에 연회장 보내기, 노인 시설 방문, 컴퓨터로 점자 번역, 지적 장애우 시설 방문, 독거노인 가정 방문, 휴지와 비누 만들기, 전화 개설

④ 평가: 정리, 반성 및 앞으로의 과제

(3) 가정 교과에의 시사점 : 가정 교과 내용 영역의 학습을 기초로 각자의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 해결을 하는 동안에 각자의 삶의 문제와 관련을 지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까지 변화까지 유도하고 있다. 우리 교과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벤치마킹해,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까지 변화는 물론, 나아가 사회참여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변혁의 주체자로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 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가정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을 통한 리더십을 길러주는 실천: 미국의 사례

(1) FCCLA(Family, Career and Community Leaders of America)의 개요 및 프로그램 소개

FCCLA는 공립 학교의 12학년까지 가정과 수업을 듣는

남녀 학생을 위한 비영리적, 전국적 직업적 학생 조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7100개의 지부와 227,000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다. 1945년부터 현재까지(65년간), FCCLA 회원들은 가정 교과를 통해 개인적, 일과 관련한, 그리고 사회적 중요한 이슈를 다룸으로써 그들의 가족생활, 진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이 조직은 가족에 초점을 두고 가정교과(FACS)¹⁾를 통해 개인, 일터,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지부 프로젝트는 10대 임신, 자녀양육(parenting), 가족 관계, 약물남용, 동료 압력, 환경, 영양과 건강, 10대 폭력과 진로탐색 등을 포함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이 조직과 관련을 맺으면서 그들의 지도자적 역량을 신장시키고, 가정이나 일터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능력(skills for life)-계획, 목표설정, 문제해결, 의사결정, 그리고 대인간의 의사소통-을 개발할 기회를 얻게 된다.

FCCLA의 사명은 가정교과를 통해 개인적 성장과 지도자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즉 가족구성원, 임금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 지도자 등 다면적 역할에 초점을 두면서 구성원들은 성격발달, 창의적 및 비판적 사고, 대인간의 의사소통, 실천적 지식, 그리고 직업 준비 등을 통해서 생활능력을 개발한다.

FCCLA 프로그램은 「직업과의 연계(Career Connection)」, 「일터에서의 리더들(Leaders at work)」²⁾, 「지역사회 서비스(Community Service)」, 「역동적인 지도력(Dynamics Leadership)」, 「FACTS(Families Acting for Community Traffic Safety)」, 「가족이 첫째(Family First)」, 「Japanese Exchange」³⁾, 「재정 관리(Financial Fitness)」, 「Power of One」, 「폭력 예방을 위해 행동하는 학생들(STOP the violence -Students' Taking On Prevention)」, 「학생들의 신체(Student Body)」 등 11개의 프로그램이 있다(<http://www.fcclainc.org>). 각 프로그램 마다 가정과교사들이 가정과 수업과 관련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프로그램 현재 우리나라에 벤치마킹해

1) 미국의 경우 가정 교과의 명칭이 Family & Consumer Sciences Education(이하 FACS)로 바뀌었다.

2) ‘직업과의 연계(Career Connection)’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

3) ‘가족이 첫째(Family First)’ 프로그램의 하위 프로그램

보면 좋을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Career Connection 프로그램 : 진로를 탐색하는 방법과 가족, 진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성공 전략을 탐색하는 방법을 학습하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가족, 진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성공을 위한 선택과 능력을 관련짓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개별적, 협조적, 그리고 경쟁적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들은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진로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은 6개의 단원¹⁾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Community Service 프로그램 : 자신의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 발견하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그들의 지역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계획하고, 성취하고, 그리고 평가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가정, 진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위한 기술을 구축하도록 돕고, 가정 교과와 관련 청소년 중심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신뢰, 존중, 책임, 공정성, 배려, 그리고 시민 의식 등 긍정적인 성격 특성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이 프로그램의 하나인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하기(to clean up the community)’ 프로그램은 두 사람의 회원이 노인 친척집의 뜰을 청소해 주는 데 몇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해당되고, 지부 회원들이 공원의 쓰레기를 줍는 데 오후시간을 보내는 것도 해당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정과 수업과 FCCLA를 통합할 수 있는 수업지도안과 활동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③ Families First 프로그램 : 가족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발견하기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건강한 가족구성원들이 되기 위한 능력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청년들이 건강한 가족구성원, 현재 및 미

래의 지도자가 되도록 돕는 데 있다. 또한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족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단원을 제공한다.

④ Financial Fitness 프로그램 : 돈 관리하기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다른 젊은이들에게 현명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고, 그리고 소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데 참가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돈 관리, 소비자보호 운동, 그리고 재무 계획하기 등에서 청년들의 능력을 연마하는 데 있다. 또한 청년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무 교육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지도력을 기르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단원 제공한다.

⑤ Power of One 프로그램 : 자신의 가족, 진로, 그리고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힘이 되어주기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그들의 개인적인 힘을 발견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다.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일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즐기도록 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배우는 기술은 그들이 현재 및 미래, 학교에서, 친구들 및 가족 간, 미래의 대학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도움을 준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섯 단원에 초점을 둔 자기주도적 프로젝트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들의 꿈을 채우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힘을 준다.

(2) 가정 교과에의 시사점

첫째, 가정 교과에서 배운 내용과 삶을 접목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가정 교과에서 활용하는 수업 지도안과 교재 등을 개발해서 교과 내용을 실천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각 지역 교과연구회에서 연구과제로 다룰 만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Career Connection, Leaders at work, Financial Fitness, Student Body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 개

1) · PLUG IN to Careers — Understand work and the Career Connection Program
 · SIGN ON to the Career Connection — Link personal interests, skills, and goals to career clusters
 · PROGRAM Career Steps — Prepare with education, leadership, and work experience
 · LINK UP to Jobs — Learn to find and land a job
 · ACCESS SKILLS for Career Success— Practice being productive on the job and promotable
 · INTEGRATE Work and Life — Manage interconnected roles in families, careers, and communities.

인의 삶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Community Service, FACTS(Family Action for Community Traffic Safety)/Family First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내용들은 현재 가정과 교사들이 수행평가에 활용하면서 학생들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셋째, 가정과 교사, 장학사, 대학의 교사교육자들이 함께 가정과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지도력을 길러 주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FCCLA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도 회의 주관 및 진행을 전적으로 학생 리더들이 했으며, 가정과 교사, 대학의 교사교육자, 장학사들은 지원만 하고 있었다.

넷째, 현재 학교에서 가정과 관련 동아리는 의, 식, 주와 관련된 동아리가 대부분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 교과 관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IV. 결론

가정교육학이 시행된 초기에는 여성을 학교로 끌어들이게 계속 공부하게 하였고 사회로 진출시켜서 사회의 유능한 리더로서 활약하게 하였고 국민의 생활교육에도 기여하였다. 하지만 현대와 같이 다원화되고 복잡하고 세계화되고 급격하게 변화되어 실질적인 문화와 집단이 경쟁하고 충돌하고 화합하고 조정하는 이런 사회에서, 그리고 여기서 오는 갈등과 충격을 온전히 가족이 경험하는 이 시대에서 가정교육은 가족개혁으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교육은 가족의 그릇된 이념을 비판하고, 갈등과 충돌을 관리하고 조절하며, 자율성과 자주성, 그리고 도덕성을 겸비하고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현명하고 성숙한 가족으로 개혁하여 이 사회에 기여할 시점에 이르렀다.

가정과교육은 ‘압축적 근대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개혁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

다. 사회학자들은 가족 스스로가 그릇된 가족 이념을 타파하고 행정적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가족개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가족 스스로의 깨우침과 자주적 사고, 그리고 행정적 입법적 지원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가족개혁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가정생활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 교과라는 실천의 장에서 교육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사회학자들이 제안하는 가족개혁과 가정과교육에서 실행하는 가족개혁의 본질과 역할은 다르며, 그 기여도도 다르다. 가정과교육 전공자들은 가정과교육의 잠재력과 기여도가 그 어느 분야의 것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고 청소년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가정과교육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명지향적인 학문이다. 가정과교육은 가족개혁을 할 수 있는 철학적 기반과 이론적 틀, 학문적 내용체계, 그리고 조직(전국의 가정과교사, 교수, 대학의 가정교육전공 등) 등 풍부한 자원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의식의 개혁 뿐 아니라 생활의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실천적 자료가 풍부하다.

우리 사회는 학생들에게 미래 가정을 형성하는 비전과 좋은 부모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갖게 하는 가정친화적 교육, 독립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생활교육, 생애 설계차원에서 진로를 개척하게 하는 진로교육, 건강한 식생활 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교육은 내용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철학과 과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습자의 깨우침, 반성적 숙고, 비판적 사고, 열린 토론, 과학적 추론, 도덕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미래교육에서 요구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교육을 담당하는 가정과교사의 신념과 열정, 사명 의식, 가정교과에 대한 미래 비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이란 미래에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모습으로 눈을 감으면 가슴이 설레게 할 정도로 뚜렷하게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한다. 진정한 비전은 고유성, 탁월성, 장기성, 사회기여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유성은, 1992). 우리는 앞에서 가정교육학의 개념적 틀에서 고유성과 탁월성, 그리고 장기성의 요소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가정교육학의 미래 사회의 요구, 사회

변화와 가족 문제와 실천 사례를 파악하면서 가정과교육이 가족개혁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지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잠재성을 인식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미래 비전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눈을 감으면 생생히 떠올라 우리를 설레게 하는 우리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비전과 전략은 무엇보다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시한 가정교육학의 개념적 체계 즉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특정 사회가 내세우는 영웅과 같은 사회적 캐릭터)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가정교육학의 이러한 개념적 틀은 사회화자들이 고민하는 우리 사회의 가족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 의미가 크다고 본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개념적 체계에서 개인과 가족은 능동적으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있는 변화의 실행자로 보았고 사회적 형상은 가족과 개인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가족과 개인은 현존하는 이념과 이상, 사회적 형상을 세우는데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 정치 체계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러한 원동력은 세 행동체계를 유지하고, 계몽, 비평, 자아-반사숙고, 담론, 행동을 통하여 실천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량을 가진 가족에게서 발휘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가정과교육을 통해서 가족개혁을 해 내는데 있다고 본다. 가족이라는 집단이 더 이상 이 사회의 종속집단이 아니라 사회개혁의 주체집단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정과교육에서의 가족의 의식을 개혁하는 교육, 생활교육, 진로교육, 가정친화교육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정과교육은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게 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가족개혁의 책임이 가정과교육에 있다는 우리의 비전 설정과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 가정과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 교육과학기술부(2010). **2005~2009 학생 자살현황**. 2010년 8월 16일(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 [<http://www.cjkorea.org/zbxe/93201>]
- 김영길(2008). **21세기 미래의 학교 무엇을 가르쳐야할 것인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유기적 교류: 창의적 인재의 육성)**. 2008 국가교육과정 포럼. 미래의 학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교육과정학회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 김은정(2010). 가정과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과제와 방향 -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7학년 교과서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2(2), 81-99.
- 류상희(1999). 가정과 교사들의 가정과 교육과정 관점에 대한 선호도와 관련변수.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1(2), 2-12.
- 문용린(2008). **미래의 학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2008 국가교육과정 포럼미래의 학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한국교육과정학회 이화여대 교육과학연구소.
- 문정태(2009). 술이 낫설지 않은 10대. 이데일리 인터넷 뉴스 2009. 3. 1[<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Read.edy?SCD=DC14&newsid=02509206589623976&DCD=A00204>]
- 박명희(2004). 한국 가정과 교사교육의 문제점과 전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6(2), 1-11.
- 박미정(2006). **가정과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 탐색: 정체성과 임파워먼트 및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박미혜(2009). 학교매점, 아침밥 챙겨주는 ‘건강매점’으로 천지일보 2009. 9. 25[<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34>]
- 박정호(2004). **사회문제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 신상옥·이수희(2001). **가정과 교재연구 및 지도법**. 신광출판사.
- 여성부(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2008. 4. 11(금) 보도자료.
- 옥양련·박금식(2001). **오늘의 사회문제**. 유평출판사.
- 유성은(1992). **미래 설계와 목표 관리**. 생활지혜사.
- 유태명(1996). 새로운 가정학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기존 패러다

- 임의 비판적 검토. 대학가정학회 제 49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집.
- 유태명, 이수희(2010).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이론과 실제**. 북코리아.
- 육승희(2010). **비판적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실천적 문제 중심 가정과 수업 개발 및 적용: 고등학교 「가정과학」 식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수희(1999). **중등 가정과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재개념주의 관점에 기초한 통합 교육과정 모형 개발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연숙 외(2005).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가정 교과의 대안적 모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05년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77-93.
- 이춘식 · 최유현 · 유태명(2001). **실과(기술가정)교육 목표 및 내용체계연구 (I)**.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2001-2.
- 장경섭(2009).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 채정현(1996).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에 대한 선호도.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8(1), 36-39.
- 채정현(2010). 미래 가정과교육의 방향. 지향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워크숍. 2010. 9. 27. 발표된 미발행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0). 2009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도서출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고은(2010). "낙태하거나 자퇴하거나"...방치되는 10대 임신. SBS 뉴스 2010. 7. 11.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68691]
- 통계청(2009). **2008 노령화 통계**.
- 통계청(2009). **2008 출산율 통계**.
- 허경철(2001). 미래사회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교육과정연구**, 19(1). 67-93.
- 牧野カツコ외(2004). **家庭總合-自立-共生創造** 東京書籍.
- 文部科學省(2010).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家庭編**
- AAFCS(2000). 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 <http://www.aafcs.org/>
- Brown, M. M.(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sota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 Brown, M.M.(1993).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 Brown, M. M. & Paolucci, B.(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Washington D.C.: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NASAFACS(2008). *National standards for family and consumer science education*. [http://www.doe.in.gov/octe/facs/NA SAFACS/Intro.html]
- Oregon Department of Education(1996). *Family and consumer science studies curriculum for Oregon middle schools*.
- Sandel, M. J. (2009).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이창신 역(2010).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 Walker, D. F. & Soltis, J. F.(1986). *Curriculum and aims*. 허숙 역(1992). **교육과정과 목적**. 교육과학사.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가정교육학의 사회적 기여 방안과 미래 가정 교과의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가정교육학의 이론적 틀과 미국과 일본의 가정과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실천 사례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본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교과는 다음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 한다: ① 개인적인 면에서 다양하고 상이한 가족 이데올로기로 가족 피로에 시달리는 개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가족 이념을 비판하여 왜곡된 삶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한다; ② 가족-사회관계 면에서 가족이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공동체 사회 지원과 참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성숙한 가정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을 한다; 그리고 ③ 남녀관계 면에서 성차별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뿐 아니라 비판을 통해서 실제로 생활에 실천할 수 있도록 남녀모두에게 양성평등의식과 가정생활 관리 방법을 교육한다. 둘째, 미래에 가정 교과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강화시키고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정직과 도덕성을 겸비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가정생활이 얼마나 정치, 경제, 사회, 행정 시스템과 연계가 되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고 비판하여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셋째, Brown과 Paolucci(1979)는 개인과 가족을 변화의 주체로 보고 현존하는 사회 경제 정치 체계가 제시한 사회적 형상과 이념과 이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인과 가족이 이념과 이상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형상을 변화시켜 사회 경제 정치 체계를 바람직한 조건으로 형성시켜가는 개념적 체계를 제안하였다. 본고에서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안한 이론적 틀을 두 가지 측면 즉,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한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것인가의 측면과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고려를 가능하게 해주는가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의 가정과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이 변화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르도록 어떻게 교육하는 지 그 과정을 다룬 수업과 동아리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다섯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 사회에서 나타난 가족 문제와 요구를 반영하여 가족의 일원인 학습자로 하여금 왜곡된 가족이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성숙한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을 유지하며 공동체 사회에 참여하는 가족개혁을 이루어내는데 있다. 이러한 가족개혁은 가족이라는 집단을 사회개혁을 이끄는 주체집단으로 여기기에 가정교과에서는 가족이 사회변화를 이끄는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주도적인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갖도록 자율적 힘(empowerment), 의식의 깨어남(enlightenment), 그리고 자주성(autonomy)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가정교과를 통한 가족개혁을 위해서 가정교과는 과거의 실업교과가 아닌 실천비판교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급히 요구한다.

■ 논문접수일자: 2010년 11월 8일, 논문심사일자: 2010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0년 12월 7일